

동구 복합문화센터 착공

소태동에 지상 5층 규모 2009년 완공

광주 동구에 문화·체육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선다. 광주시 동구청은 9일 소태동 524-5번지 일대에서 유태명 청장과 지역문화계 인사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문화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동구문화센터는 4천520㎡의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로 오는 2009년 완공 예정이다. 센터 내부에는 소공연장(120석)을 비롯, 문화교실·예술창작실·동아리방·전시휴게실을 갖춘 문화공간이 들어선다. 또 체육관·수영장·헬스장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함께 46면의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동구청은 문화센터가 들어서면 재개발사업 추진과 외국어고등학교 유치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지원동, 학운동, 학동 등이 일대 주거지역이 새로운 문화명소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문화도시 동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동구문화센터가 문을 열면 이곳에 각종 전시회와 공연을 유치할 것”이라며 “각종 문화프로그램 상설화로 동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는 야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광주의 밤 풍경이 바뀌고 있다. 광주천의 야간 경관.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9일 동구 소태동 524-5번지 부지에서 열린 '동구문화센터 착공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착공을 알리는 발파 버튼을 누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남도학숙 입사생 광주 189명 전남 140명 선발

광주시는 서울에서 유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해 전남도와 공동 설립한 '남도학숙'의 신규 입사생 329명을 선발한다. 시는 이 가운데 신입생 154명(일반계열 150명, 예체능계열 4명)과 대학원생 등 재학생 35명을 합해 189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나머지 입사생 140명은 전남도가 뽑게 된다.

지원 자격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신입·재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부모의 주민등록이 공고일인 10일 현재 광주시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입사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입사원서를 내려받거나 시·구청 민원실에서 원서를 받아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중외공원 일대 입체 조명...광주천 교량 LED조명

빛고을, 밤 색깔이 바뀐다

광주시 '야간 경관 밝은 도시 개선 계획' 착착

빛고을 광주의 밤 풍경이 바뀌고 있다. 은은한 조명이 밤을 비추는 중외공원 입구 보도는 걷고 싶은 길로 변모했고, 문화예술회관 건물에는 입체적인 야간조명이 설치돼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의 주요 장소에서 밤의 색깔이 바뀌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광주시가 추진해온 '야간 경관 밝은 도시 개선 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인 광주공원에는 야간산책이 가능하도록 경관조명 전용등을 설치한데 이어 시립미술관, 토지공사·주택공사 사옥, 문화 대교 등지에 차분하고 안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LED조명 등을 시설했다. 올해에는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문

화예술회관 일대, 비엔날레 전시관, 시립민속 박물관 등 중외문화예술벨트를 대상으로 야간 경관 전용등을 설치하는 등 걷고 싶은 밤길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 광주비엔날레의 개막에 맞춰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조선대학교와 금호생명빌딩이 광주의 대표적인 민간 건축물인 점을 고려, 건물의 외관을 돋보이게 하는 야간 조명기구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천의 풍경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교량경관 개선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47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4월 완공을 목표로 남광교, 학강교, 양림교, 금교, 서석교 등 광주천의 교량난간에 LED조명 등을 설치, 광주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록할 방침이다. 밤 풍경을 바꾸기 위한 가로등 밝기개선 사업도 전개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 25억원을 들여 무등로 등 시내 주요 간선도로 15개 노선(19.5km)의 가로등 913개를 교체한데 이어 올해에는 월드컵 4감로, 상무로, 박물관로 등의 노후 가로등을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시는 광주역, 송정역, 대인광장의 조명 타워설치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4월에는 도심의 야경이 한층 밝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빛고을’인 광주의 야간 경관이 다른 도시에 비해 어둡다는 외국인들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올해부터 ‘밝은 도시만들기’ 계획이 본격 추진되면 광주의 밤 풍경이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자치구 새해 첫사진

④ 남구

주거환경 개선·효사랑 정착 '풍요 남구' 주춧돌 놓겠다

“효친지구 도시개발과 진원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황일봉(사진) 광주시 남구청장은 “남구는 지난해 국가생산성대상 4회 연속 수상과 더불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알찬 결실을 거뒀다”며 “올해는 ‘활기찬 도시, 풍요로운 남구’를 가꾸는 주춧돌을 놓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새해 설계를 밝혔다.



황 청장은 이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풍요롭고 머물고 싶은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공중합성센터를 주축으로 압촌동 일대의 장류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도시근교농업 육성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한편 포충사, 고싸움전수관 등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농업용 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적극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착기에 들어선 효사랑시책을 심화 발전시키고 효사랑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황 청장은 “송하동 종합의료복지타운이 효자촌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고학년용 효사랑 생활 인성교과서의 영문판을 개발해 영어권 어린이들에게 보급

할 계획이며, 저학년용 교과서 개발도 이미 착수해 올해 완료 보급함으로써, 효사랑 문화를 국내는 물론 세계로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풍부한 전통문화 자산을 문화관광 콘텐츠로 만들어 ‘문화광주’의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남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지구 중 사직공원, 양림동 일대가 ‘아시아문화지구’로, 대촌·칠석동 일대가 ‘아시아문화전승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전통문화 자산의 활용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황 청장은 “고추마을이 테마파크 영상체험관을 연내 개관하고, ‘한·중 청소년 교차마을’이 민속 캠프를 개최하는 등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관광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결혼, APT 입주자를 위한 SALE!!

가정·사무용 각종 생활용품

요한이네 할인매장